

제6강 독일관념론 철학 : 헤겔

◆ 헤겔의 절대적 관념론의 철학(1) ◆



Hegel (1770-1831)

△ 사유와 존재의 관계-헤겔 철학의 뿌리

- **헤라클레이토스**, “만물은 변한다.”
→ “진짜 존재하는 세계가 역동적으로(변증법적으로) 변화한다.”
- **아리스토텔레스**의 목적론
→ “존재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전개하여 철저히 현실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변화한다.” (존재를 하나의 생(das Leben 생명)으로 봄)
- **스피노자**, “실체는 정신과 물질이라는 속성을 갖고서 여러

양태들로 변용되어 분화된다.”

→ “존재는 정신적인 차원과 물질적인 차원으로 나뉜다.”

※ 독일 관념론의 계보

- ① **칸트** : 선험적 관념론
- ② **피히테**¹⁾ : 주관적 관념론(자아와 비자아, cf, 신채호)
- ③ **셸링**²⁾ : 객관적 관념론(동일성의 철학)
- ④ **헤겔** : 절대적 관념론(피히테와 셸링을 포괄. **후설**의 현상학으로까지 이어짐.)



Fichte (1762-1814)

△ 변증법적 진보관념

- 존재의 자기 전개는 **변증법**적으로 진행된다.

→ 존재의 자기 전개로서의 현실화의 과정이 이중적으로 벌어지면서 다시 합쳐지고, 다시 합쳐진 상태에서 새롭게 이중적으로 벌어지면서 다시 새롭게 합쳐지는 방식을 계속한다.

- 정신과 물질의 분화는 존재의 자기 발전을 위한 필연적 과정.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역사는 진보한다.

1) Fichte, Johann Gottlieb (1762-1814) 칸트 철학, 특히 실천이성의 ‘자율’과 ‘자유’사상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음. 실천적, 주관적 관념론. 프랑스 혁명 시대를 배경으로 해 근대적 자아를 자율적인 형이상학적 원리에까지 지양했다.

2) Schelling, Friedrich Wilhelm Joseph von (1775-1854) 피히테에 의해 세계의 궁극적 원리로까지 높아진 근대적인 '자아'를 객관적 '자연'의 방향으로 심화시킴. 헤겔의 입장을 '소극철학'으로 규정, '적극철학'을 설파하였으며 '이성'과 '체계'를 깨뜨리는 실존철학의 길을 열어 그 선구자로도 지목된다.

◆헤겔의 절대적 관념론의 철학(2)◆

△ 정신의 발전(정신 발달의 6 단계 中)

①의식

②자기의식

- ‘자유’라 불리는 물질의 상태를 만남. 철학적 사유의 단계
- 결국 불행한 의식(기독교적 의식)으로 귀결되면서 불완전한 것으로 그치고 만다. (자기 자신 속에서 현실과 종교와의 화합을 이뤄내지 못함)

③이성

- 왜 스스로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가를 깨닫는 과정.
- 안과 밖의 상호규정적인 투쟁. 욕망과 필연성의 대립.
- 개별성의 확보(근대정신의 초기단계)

④(좁은 의미의)정신 Geist

- 가족, 사회, 국가 등으로 확대되는 인륜성(Sittlichkeit), 즉 도덕적인 세계를 알게 됨.
- ‘국가’라는 하나의 정신체를 위한 ‘시민사회’의 중요성 : 각 개인의 힘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가 정신과 개인을 매개해 준다.
⇒ 예술, 종교, 철학의 중요성



※ 『정신현상학』 : 헤겔의 대표적인 저서.
감각에서 오성과 이성을 거쳐 결국 절대지(絕對知)에 도달하는 인식의 계단을 서술한 철학적 신곡으로 불린다.

⑤종교

- 도덕적 의무의 세계를 넘어섬.
- 자연종교, 예술종교, 계시종교의 단계를 거치면서 모든 대상을 자신의 사랑 속에서 바로 자기 자신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. (ex, 부모가 자식에게 느끼는 감정)

⑥절대지

- 정신의 최고단계.
- 자기 자신의 완전하고 진정한 내용에 자기의 형식을 부여, 그럼으로써 자신의 개념을 완전하게 성취하여 그 속에 머문다. (자기

것이 아닌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태, 知行合一)
(⇒ 삶이란, 타인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다.)

※ 헤겔의 **국가주의** : ‘국가 없는 개인은 개인이 아니다.’

※ **세계정신(Weltgeist)** : ‘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정신이다.’
(세계정신의 자기 실현과정이 세계사이며, 세계사에서는 신(神)의 이성(理性)이 지배하고 있다.)

※ **구체적 보편자** : 개별자들의 개념들을 최대한 실현시켜 주면서 자기 자신을 실현시키는 참다운 보편자. 모든 개인이 자유로울 수 있는 보편적인 정신을 뜻한다. (↔추상적 보편자)

